【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발의년월일 : 1998. 3. 18.

발 의 자 : 김광배의원외 2인

□ 제안이유

군정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코자 함.

□ 주요내용

○ 붙 임 : 질문서 1부.

【 9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안 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1998. 3. 25.

발 의 자 : 이상원의원외 2인

□ 주 문

○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①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②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전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대책 강구

③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차원의 회암사지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 제안이유

○ 지난해 10월 경기도 박물관측에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회암사지에 대한 장기 발굴계획 승인을 받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18일동안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토된 유물등을 보아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불적(佛蹟)임을 알수 있었음.

○ 그러나 회암사지 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00부대가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회암사지 일부 및 인근토지를 군사시설 부지에 편입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회암사지복원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질책을 받고 중단되는 사태를 보며

○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보호가치가 상당한 회암사지가 훼손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붙임과 같이 정부 및 각계 요로에 건의코자 함.

붙임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문 1부. 끝.

회암사지 보전 및 복원 건의문

□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번지 일원에 소재한 檜巖寺는

○ 고려 충숙왕 15년(1328년)에 인도의 고승 指空화상이 창건하였고 우왕 2년(1376년) 지공의 제자인 懶翁이 다시 지었으며 조선 성종 3년(1472년) 세조비 정희왕후의 명으로 삼창되어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번창하였던 국찰입니다.

○ 천보산 남쪽 기슭에 북에서 남으로 퍼진 부채꼴의 대지 32,668㎡ 위에 8단으로 터를 닦아 건물을 세웠는데 번성기에는 전각이 262간이었고 암자도 17개나 되었으며 조선 중기에 원인모를 화재로 폐사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태조 이성계의 각별한 관심으로 나옹의 제자인 無學大師를 회암사에 머물게 하여 불사가 있을 때 마다 대신을 보내 찰례토록 하였으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 회암사에서 수도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 현재는 회암사지 북쪽 구릉 위에 指空, 懶翁, 無學의 사리탑이 있고, 그 능선 서쪽 골짜기에 지금의 회암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檜巖寺址내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 檜巖寺址는 국가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고

○ 국가 보물 제387호 禪覺王師碑 (懶翁禪師碑),
제388호 檜巖寺址 浮屠,
제389호 檜巖寺址 雙獅子石燈과,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指空禪師 浮屠 및 石燈,
제50호 懶翁禪師 浮屠 및 石燈,
제51호 無學大師碑,
제52호 檜巖寺址 浮屠塔을 비롯해,

○ 경기도 민속자료 제1호인 檜巖寺址 맷돌,

○ 양주군 향토유적 제13호인 檜巖寺址 幢竿支柱등 수많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의 회암사지 조사 및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 1960년대 최초로 국립박물관에 의해 금당지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이 있었으나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1985년 새한건축문화 연구소에 의해 실측조사가 실시되고 초석 및 기단 확인을 위한 부분적인 굴토작업이 실시된 바 있으며

○ 1990년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 연구소에 의해 3단지에 대한 기초 발굴조사 및 정비가 있었고, 1991년 회암사지 보호철책을 설치하고 1995년에 우회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최근에 와서는

○ 1997. 10. 15. 경기도 박물관측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총 7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장기발굴계획 승인을 받고
1997년 1차로 1억원을 투자해 회암사지 전역을 대상으로 시굴조사 및 주변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1998. 3. 7. 시굴현장에서는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그간의 조사성과 보고회 및 향후 발굴계획 수립을 위한 지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회암사지는 석축단과 건물지가 폐사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고 조선시대 건물지 아래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어 회암사지의 창건이 적어도 12C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天)·地·玄·黃등의 명문이 새겨진 상품 백자, 궁궐터에서나 볼 수 있는 청기와, 皇帝萬歲가 새겨진 와편, 용봉문 암·수 막새 등이 출토되어 국찰로서의 자격이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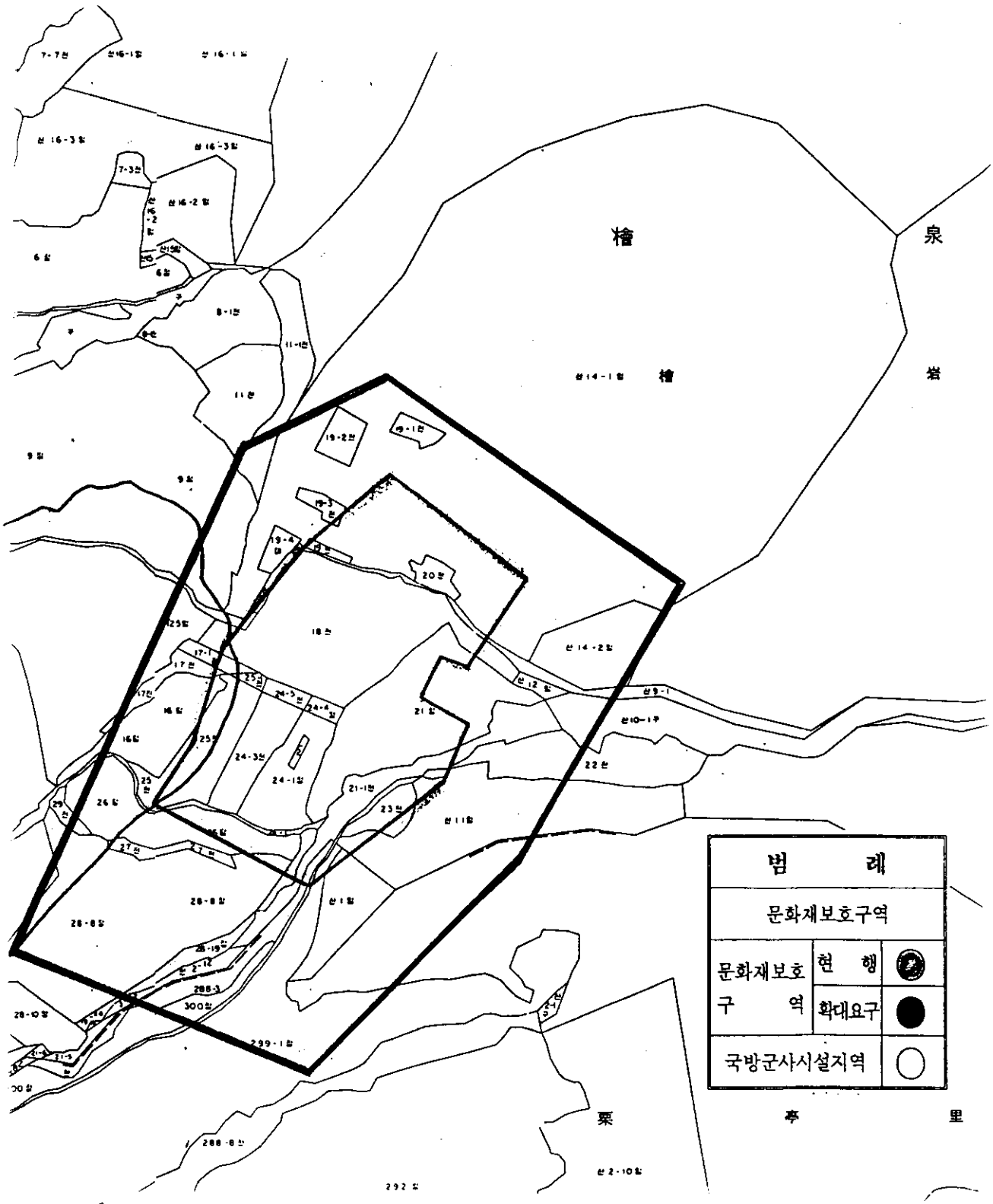
○ 회암사지 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각종 유구의 발견과 함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00부대가 군부대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회암사지 일부 및 인근토지를 군사시설 부지에 편입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회암사지복원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질책을 받고 중단되는 사태를 보며

○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보호가치가 상당한 회암사지가 훼손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문화관광부장관께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합니다.

1. 현재 회암사지는 경내를 중심으로 32,668㎡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회암사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이나 1차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지 주변에는 이곳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상당수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암사지 발굴이 완료되는 즉시 주변발굴도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붙임 도면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암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은 총면적 32,668㎡중 10필지 19,444㎡는 사유지이고 확대예정지역 역시 49필지 130,413㎡중 41필지 113,884㎡가 사유지로서 최근 이 지역에는 토지 형질변경, 건축 등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이로인해 국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편입토지를 전량 매입하여 문화재 보전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회암사지 복원을 위한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회암사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과 함께 사회각계를 대상으로 회암사지 복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가 복원되면 전통문화의 계승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와같은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차원의 회암사지 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檜
泉
檜
岩
栗
亭
里
범 례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 구 역
현 행
확대요구
국방군사시설지역